

제2장. 여주군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제2장. 여주군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

1. 자연지리

1-1. 위치

여주군은 경기도의 남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경계되는 경기도의 도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강의 지류인 남한강이 군을 북동 지역과 남서 지역으로 크게 나누면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북동 지역에서 동쪽으로 강원도의 원주시, 북쪽으로 경기도의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서 지역에서는 남으로 충청북도의 음성군, 서쪽으로는 경기도의 이천시, 광주시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주군의 절대적 위치는 동단이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서단이 산북면 하품리, 남단이 점동면 관한리, 북단이 금사면 전북리에 해당된다.

지리적으로 여주군은 남한강을 통한 수운이 편리하고 서울과 육상 교통로도 접근이 용이하여 조선시대 관료들의 피난지 및 낙향 지역으로 이용되어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으며, 군의 전통과 품위, 그리고 지역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강원도의 남부 지역과 영동으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서울과 강릉간의 영동고속도로로, 서울과 원주간의 국도 42호선, 장호원과 양평간의 국도 37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서울과 충청도를 비롯한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및 산업 도로들이 통과하여 매우 교통이 편리하고, 외부 문화에 개방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의 동남부에 위치함과 내륙지역성이 복합되어 전통이 보존되어 있고, 옛스러움을 간직한 보수적 성격의 고을로 도내에서는 특징 지워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주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지리(地理)편에 여주군 지역은 기천군으로 본시 고구려의 술천군으로 되어 있다.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기천(沂川)으로 개명하였다. 지금 천령군(川寧郡 : 지금의 여주군)이니 영현(領縣)이 둘이다. 황효현(黃驍縣)은 본시 고구려의 골내근현으로 경덕왕이 황효로 개명하였으니 지금의 황려현(黃驪縣 : 지금의 여주읍)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여주군의 역사적 위치를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여주목(驪州牧)조에 살펴보면, 여주군은 “본래 고구려의 골내근현이다. 신라 경덕왕이 황효로 고쳐 기천군의 속현(屬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황려현, 황리(黃利)라고도 한다.”고 나온다. 현종 때 원주에 부치고,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고종 때 영의(永義)로 고치고 충렬왕 31년에 순경왕후(順敬王后) 김씨의 고향이므로 여흥군으로 승격시켰다. 대명(大明) 홍무(洪武) 21년에 신우(辛禡)를 이 군에 옮기고 황려부로 승격시켰다가 공양왕 원년에 다시 내려 군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태종 때에는 원경왕후의 고향이므로 다시 승격하여 부(府)로 하였고, 음죽현 북쪽 어서이촌(於西伊村)을 합하여 충청도로부터 경기도에 예속시켰다가 위에 고쳐 도호부(都護府)로 하였다. 예종 원년에 영릉(英陵)을 부의 북성산(北城山)에 옮기고, 천령현(川寧縣)을 혁파하여 이 부에 소속시키고 지금 이름으로 고쳐 승격시켜 목(牧)으로 하였다. 군(郡)명칭도 시대에 따라 골내근, 황효, 영의, 황려, 여강, 여흥, 여성(驪城) 황리로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볼 때 여주군의 역사적 위치는 삼국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위치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지역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재 여주군의 위치는 동쪽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접해 있고 남쪽은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및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과 연결해 있으며 서쪽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광주시 실촌면과 맞닿아 있다. 북쪽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제면, 양동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1-2. 면적

여주군의 면적은 경기도의 18개 시·군에서 일곱 번째로 큰 면적으로서, 2004년 현재 그 면적은 608km²이다. 이중 남한강의 동북지역이 총면적의 39%를 차지하고, 강의 남서지역이 총면적의 61%를 이루고 있다. 여주는 1읍 9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위별 면적을 보면, 여주읍은 56.53km²이고, 군의 남서단에 위치한 가남면은 75.27km², 군의 중앙 동편에 있는 강천면은 74.06km², 군의 북서부 지역인 금사면은 41.73km², 군의 서부 지역인 능서면은 53.45km², 군의 중북부 지역인 대신면은 75.88km², 군의 북동부 지역인 북내면은 82.49km², 군의 서북단인 산북면은 32.89km², 군의 동남단 점동면은 71.70km², 군의 북서부 흥천면은 44.23km²이다.

1-3. 지형

여주군은 동으로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완만한 경사를 지으며, 한강을 끝으로 그 모습이 서서히 멈춰지는 곳으로 평야와 맞닿는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 차령산맥이 멀리 충청도에서 올라와 강원도의 치악산을 거쳐 오대산에 이르러 태백산맥과 연결되면서 여주군의 남쪽을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다. 북쪽으로는 광주산맥이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려와 여주군의 금사면에 와서 점점 구릉성 산지를 만들고 있다. 북쪽으로는 천덕봉(635m)이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오갑산(609m)이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동으로는 당산(541m)이 양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세 산맥으로 둘러싸인 모양으로 하여 이른바 여주·이천평야가 남한강을 끼고 펼쳐져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그 면적이 대규모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통칭 경기평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작은 하천을 이루며 남한강으로 모아져,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 풍년의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내륙지역에 형성된 하천 유역의 충적평야를 이룬다.

여주군의 지형은 이천시와 함께 분류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군을 둘러싸고 있는 세 산맥의 기본 암질이 편마암과 화강암인 관계로 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남한강 주변의 충적평야도 그 두께가 약하고, 이것이 평야의 물 빠짐을 용이하게 하여 농경에 이로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충적평야는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진 것이 아니고,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를 끼고 있다.



그림 2-1 여주 남한강 유역 항공사진

이 구릉성 산지들도 대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한강유역에 넓은 모래사장 특히 은모래사장을 발달시켰다. 여주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도 화강암과 편마암 산지를 흐르는 관계로 사행천을 이루고는 있으나 그 유로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는 것이 특색이다.

남한강의 동북 지역은 산지가 많은 곳으로, 강천면과 북내면이 차령산맥과 연하여 있어 특히 산지라고 할 수 있고, 대신면은 태백산맥의 경사면이 한강과 맞닿는 지역으로 구릉과 들이 어우러져 펼쳐진다. 강남 지역은 전형적인 여주평야로서 넓은 들과 야산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여주읍과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등에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사면은 광주산맥의 영향으로 산지가 많은 곳이며, 점동면은 남한강의 지류인 청미천이 관류하고 있어 넓은 충적평야를 주변에 거느리고 있으나, 차령산맥이 면의 남부를 막고 있어 험한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여주군의 남서쪽인 여주읍, 가남면, 능서면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북동쪽으로는 강천면, 북내면을 중심으로 한 산지지역이 펼쳐져 있다. 금사면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지역은 광주산맥의 영향으로 주변에 비해 높은 산지가 나타난다. 남부 지역인 점동면은 남한강과 그의 지류인 청미천이 흐르고 있지만 차령산맥의 줄기인 오갑산의 영향으로 험한 산지를 이루고 있다. 여주군의 지형을 권역별로 대별해보면, 오갑산과 당산, 천덕봉이 분포하는 동부, 북서부의 산지와 남한강 본류 및 복하천, 양화천 등의 소규모 하천들이 유입되어 저기복의 지형이 분포하는 중부-남서부의 저습지 및 구릉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주군의 하천 분포를 보면 대부분 구릉을 타고 내려오는 소규모 하천들이 남한강(여강)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한강을 기준으로 강남 지역에는 청미천과 이천시에서 흘러나오는 복하천과 양화천이,江北 지역에서는 북부 산지에서 발원하는 금당천과 계림천이 남한강에 합류하고 있다. 남한강은 여주군을 남동쪽에서 북서방향으로 관통하면서 강남과江北으로 구분하게 되는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며 전형적인 수지상 하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여주군을 관통하는 남한강은 여타 한강의 감입곡류하도의 모습을 보이는 지류들과는 달리 ‘백석리도’·‘양도’와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하중도(河中島)를 발달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행하천의 모습도 보인다.

2. 자연환경

2-1. 기후

여주군 기후의 특색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후 특색과 거의 일치한다. 즉 기온의 측면에서 내륙에 위치한 관계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어 계절간 한서의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강수나 바람의 측면에서 볼 때 계절풍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강수와 풍향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어, 남해안 지방에 이어 두 번째로 비교적 안개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수량도 차령산맥과 태백산맥 그리고 광주산맥에 둘러싸여 지형성 강우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제2의 다우 지역에 해당된다.

연평균 기온은 약 11℃내외며, 대개 10월 말경부터 이듬해 4월 초순까지 서리가 내린다. 한여름인 7~8월에는 최고 30℃이상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열대기온을 나타내고, 겨울철에는 최저기온의 평균이 -18℃까지 내려가는 등 1년간의 계절 간 한서의 차이가 뚜렷하다. 반면에 군내 지역 간의 기온차는 지형의 균질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수나 바람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여주군은 계절풍(monsoon)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절에 따른 강수와 풍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름 강수는 중국 대륙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이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의 차단을 받아 지형성 강우를 형성하여 연 강수량 1,239mm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형성 강우로 말미암아 집중호우(일 강수량 100mm 이상)가 잦은 지역이고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범람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겨울 강수는 대개 눈에 의해 이루어지나, 적설량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치를 보이는 30~40mm정도이다. 물론 산지 중 서면은 이보다 좀 많은 편이다. 강설 유형은 대개 북서풍형 강설과 전선형 강설로 이루어져 있다. 초월 일은 평균적으로 10월 하순과 11월 초순에 이루어지며, 종설일은

3월 중순으로 기록된다. 연도별 강수량을 보면,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평균 1,315.7mm를 나타내고 있어 예전의 강수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 2000년에는 1,106.6mm, 2001년에 811.8mm, 2002년 1,266.3mm로 평균 1,065.6mm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는 1,541.7mm가 내렸으며 특히 7~9월 사이에 900mm 이상이 집중되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강수량 자료로 볼 때 여주 지역도 환경오염에 따른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 충주댐의 건설로 소기후의 변화가 관측되며, 또한 팔당댐으로 인하여 내수면이 형성되어 여주군의 북부에 해당하는 금사면과 대신면 일부 지역의 겨울 기온이 내려가고 봄과 가을에는 안개가 많아졌다.

바람은 전형적인 계절풍으로서, 여름은 남동풍, 겨울은 북서풍이 탁월풍으로 국지풍은 거의 없는 평지다. 습도는 인간생활에 적당한 60~70%로서 여름은 조금 높은 편이다. 특히 다른 내륙 지방보다, 내수면이 많은 관계로 우리나라의 내륙평균 6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일조시간은 우리나라 평균인, 연 600시간과 거의 비슷하며 안개는 연중 50일 정도로 남한강을 끼고 있어, 내륙지방 치고는 높은 편이다. 서리는 초가을부터 늦은 봄에 걸쳐 기온의 일교차가 큰 내륙지방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주군도 이에 해당되어 10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서리가 내린다. 한강 주변보다는 산지 지역에서 그 일수가 많아진다.

2-2. 지질

여주의 지질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남동쪽에 소규모로 시대 미상의 편암(Schist)과 대상흑운모편마암(banded biotite gneiss) 등의 변성암류를 전체적으로 중생대의 흑운모화강암이 관입하여 관입 접촉의 지질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체구조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화강암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산둥육지와 대비되는 경기육지의 일부로서 중국의 황하분지의 지질요소와 비슷하다. 지질구조의 방향은 중국 방향으로서 광주·차령산맥으로 대면되는 심성암의 대저반들이 분포되어 있다.

암석의 종류로 구분해 보면, 변성암의 일종인 경기편마암 복합체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암질을 보이고 있다. 즉 화강암화 작용이 약하여 호상구조를 보여주는 편마암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광물 성분 조직 변화도에 따라 분류할 때는 화강편마암으로서 낮은 구릉지대나 평야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화강편마암의 주변부에 나타나는 반상변정질편마암이 여주군의 산악지대인 차령산맥 줄기와 광주산맥 줄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강편마암과 함께 초상편마암이 여주군의 저산지에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질의 상태를 보면 변성암류(metamorphic rocks)는 남동쪽의 충주시 양성면과 점동면을 경계로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대상흑운모편마암(banded biotite gneiss)이 북동 방향으로 대상(帶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종종 흑운모편암(biotite schist)과 호층(alternation)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흑운모화강암이나 섬장암(syenite)에 의해 관입 접촉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의 변성암류를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류는 여주군의 남부와 남서부에 대규모로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biotite granite)과 능서면 북부에 소규모로 나타나는 백운모화강암(muscovite granite), 북서부 능서면 대부분과 홍천면의 남부, 북동부의 보금산 일대, 북내면 남부와 여주읍 일대에 넓은 분포를 보이는 복운모화강암(two mica granite) 등이 있다. 그리고 동부 강천면과 가남면 남부의 반상화강암(porphyritic granite), 강천면 뚜갈봉 남쪽의 작은 암주상의 관입체인 각섬석화강암(hornblende granite), 산성화강암류 등이 산재한다. 기타 소규모로 분포를 보이는 거정질화강암(pegmatitic granite), 반화강암질암(aplitic granite) 등도 분포하고 있다. 또한 능서면 북성산과 남부 강금산의 높은 지형을 이루는 섬장암질 화강암(syenitic granite), 강천면 남동부와 점동면 북동부의 섬록암질 화강암(dioritic granite) 등의 중성화강암류와 이를 관입하고 있는 석영반암, 화강반암, 거정질화강암, 규장암(felsite), 석영맥과 기타 중성암맥이 다양한 방향으로 관입되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제4기의 충적층은 남한강을 비롯하여 청미천, 양화천, 금당천 등 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2-3. 토양

여주군의 토양은 지형을 기준으로 볼 때 하천 범람지 토양(河川泥濘地土壤)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분포하고, 내륙 평탄지, 구릉 및 산악 곡간지 토양, 저구릉 곡간지 토양, 저구릉지 토양, 산록지 토양, 구릉지 토양, 산악지 토양 등이 골고루 여주군 전 지역에 혼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토양군의 분류에 따르면 여주군의 토양은 다음과 같다.

회색토는 남한강과 그 지류의 충적 평탄지, 그리고 저구릉 및 구릉 곡간지에 널리 분포하고, 배수상태가 약간 불량하며, 토성은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황갈색, 적갈색 및 진갈색을 띠고 비옥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토양반응 약산성 내지 중성이다.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충적토는 남한강과 그 지류 지역에 회색토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 깊이가 얇고 토양의 성분은 사양질, 미사사양질, 또는 식양질이며, 자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황갈색, 암회갈색, 암갈색 등을 나타내고 비옥도는 보통 또는 약간 높은 편이다. 이 토양은 약산성 및 중성으로 대부분 논으로 이용된다.

적황색토는 저구릉 홍적층 밑 산성암의 산록지 대지 등에 나타나고 토질은 식질과 식양질이다. 토양배수는 양호하고 적갈색, 황갈색 및 황적색의 양토이다. 깊이는 1m이상 되며 기층은 적갈색·황갈색, 적황색 및 갈색의 양토·사양토·사질식양토로서 3m이상의 깊이를 보인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비교적 낮고, 강산성 내지 약산성으로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퇴적토는 봉적 및 충적작용이 혼성되어 구릉 및 산악의 경사지와 산록 퇴적지에 약간씩 분포하며 배수는 양호한 편으로 토성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높은 편이고 약한 산성과 강한 산성의 토성을 지니고 있고, 배수관계에 따라 대부분 논으로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생산력은 보통이다.

암쇄토는 여주군의 구릉지 및 산악 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토양 배수는 매우 양호하고 토양의 성질은 사양질 또는 식양질이다. 이 토양은 토양의 깊이가 얇은 것이 그 특색이다. 토양의 겉 빛깔은 갈색, 황갈색, 황적색, 적황색, 암갈색 등의 양토 및 사양토이고, 그 속은 적황색·명갈색, 진갈색, 갈색, 갈색, 황갈색 등의 사양토 및 식양토이고, 석영자갈이 있고, 토양 발달이 미약하다.

기층은 황갈색, 갈색, 암황갈색 등의 사양토와 사토이고, 풍화도가 약한 편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유기물 함량이 적어 낮은 편이고, 토양의 반응은 약한 산성 내지 강한 산성이고 염기 포화도도 낮다. 대부분 임지로 이용되고 밭으로 개간되거나, 초지로 점차 이용되고 있다.

한편 남한강과 그 지류 즉 양화천과 청미천, 복하천, 금당천을 끼고 충적토로는 화강편마암의 기층에서 형성되어 유실되어온 고른 사질토 즉 모래사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자갈의 함유량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식생

여주군은 우리나라의 중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경기도의 서부 지역과, 강원도의 산악 지역간의 접이지대에 위치하여 소지역의 식생분포로 볼 때 산지성을 띤 구릉성을 바탕으로 한 식생 분포를 하고 있다. 여주군의 수리적 위치는 극동 E127°46'(강천면 대둔리), 극서 E127°21'(금사면 하품리), 극남 N137°8'(점동면 관한리), 극북 N37°26'(금사면 전북리)로서 북위 35°~43° 2'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온대 식생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즉 수직상의 식생 분포보다는 혼합적인 수평적 식생 분포를 갖는 것이 특색으로 온대 중부에 속하는 온대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높은 산이 거의 없어 특징적인 식물의 수직 분포나 수평 분포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주군의 현저한 우점종은 소나무이지만, 그 이전에는 참나무 그리고 그 오래 전에는 잣나무와 전나무라고 생각된다. 높은 산이 거의 없어 한대식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난대식물로는 감나무 정도이다. 식생의 분포는 여주군의 면마다 특이한 특성이 거의 없고, 군의 전 지역이 균일적인 식생분포를 보이며, 다만 지형에 따른 분포의 분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산지의 우점종은 소나무이고, 대개 왜송과 재래종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나무 아래에 산거울, 김의털 등이 자라나거나, 잡초가 흩어져 있다. 오갑산 등 600m이상 지역의 산 정상에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이 섞여서 분포하고 산록으로 내려올수록 소나무가 점점 많아지며, 그 밖에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분포하고 산줄기에는 사방 수목인 오리나무들이 많이 자라며, 역시 사방 수목인 아카시아 나무들이 거목보다는 잡목으로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수목 아래에는 진달래, 산철쭉, 싸리 등의 관목이 번성하고 있다.

산의 허리에는 굴참나무, 잣나무 등의 수목이 자라나고, 이보다 높은 곳은 신갈나무, 피나무, 단풍나무 등이 잔소나무와 함께 자란다. 또한 산허리 아래에는 철쭉나무, 참싸리, 참개암나무 등의 관목과 우산나물, 단풍취, 살새풀, 등굴레 등의 초본의 군락이 함께 형성되고 산골짜기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산의 골짜기 중 넓은 지역에는 소나무나 참나무들이 우점종으로 자라고, 산의 치맛자락 부분을 참나무와 관목들이 수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개 산지가 낮아 연료 매취의 대상이 되어 거목보다는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우량종보다는 속성종인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이 번창하는 등, 무성한 수풀보다는 듅성듅성한 식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산림보호와 가정연료의 변화로 인하여 차차 인공림에서 자연림으로 회복되는 등 본래의 식생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하겠다.

들판에는 이른 봄에 제비꽃, 할미꽃, 양지꽃, 민들레, 썸바귀 등이 번성하며, 개나리가 마을 주변에 번창한다. 또 미나리, 개미취, 쑥부쟁이, 구절초, 엉겅퀴 등의 군락이 들판에 여름 가을로 형성되고, 길가에는 질경이, 그렁, 길뚝사초, 강아지풀, 포아풀, 바랭이 등이 널리 자란다. 습지에는 여뀌, 고마리, 닭의장풀, 수생식물인 갈대, 줄, 아기부들, 그리고 정수식물인 연꽃, 가시연꽃, 풀달개비, 부수식물인 마름, 개구리밥, 침수식물인 말, 물질경이 등이 흔하게 자라고 있다. 또한 개천이나 강가에는 버드나무, 능수버들 등이 그리고 마을 가까운 곳에서는 밤나무, 아카시아, 미루나무, 포플라 등이 분포한다.

가내(家內)식물로는 감나무, 밤나무와 앵두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이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대개 율타리에는 두릅나무, 개나리, 향나무 등을 심는다. 마을의 중심이나 어귀에는 고목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가 한두 그루씩 식재되어 있고, 대추나무도 흔하게 발견된다.

3.인문환경

3-1. 인구와 취락

여주군의 인구수 변화를 보면 1985년 9만 3,341명이던 것이 1997년에는 10만 명을 넘어 2001년에는 10만 5,084명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6년, 1988년, 1991년과 1994년에는 전년에 비해 각각 인구 감소를 나타내었다. 1985~2001년 사이의 보통 인구 증가율은 12.6%로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17%를 나타내어, 같은 기간의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증가율 1.21%보다 낮다. 한편 같은 기간에 가구 수의 변화도 1985년 2만 1,585가구에서 1996년에는 3만 가구를 넘었으며 2001년에는 3만 5,095가구로 1986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구 증가율은 62.6%이고, 연평균 가구 증가율은 3.91%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층과 노년층 가구의 분가와 단독가구의 증가 등 핵가족화됐기 때문이다. 즉, 1985년 여주군의 가구당 인구수는 4.3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3.0명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 여주군의 읍·면별 가구와 인구 분포를 보면, 먼저 총 가구 수(35,095가구)의 1/3 이상이 여주읍에 분포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남면(15.9%), 북내면(14.2%)의 순으로 이들 3개 읍·면이 총 가구 수의 약 65%를 차지하여 가구 수의 읍·면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구 분포를 보면 가구 수와 마찬가지로 여주읍이 총 인구수의 36.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남면(15.3%), 북내면(14.2%)의 순으로 여주읍을 중심으로 인접한 이들 3개 읍·면의 인구수가 약 66%를 차지하여 인구수도 가구 수와 마찬가지로 읍·면간 차이가 크며 여주읍의 집중도가 강하다. 이와 같은 가구 수와 인구수의 지역적 분포에서 여주읍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군청 소재지로 중심지 기능이 많이 분포하고, 가남면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며, 북내면은 도자기 생산지로서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별인구를 보면 2001년 여주군의 남자는 5만 3,169명이고 여자는 5만 1,915명으로 성비가 102.4로 남자가 조금 많은데, 이를 1990년의 성비 104.4와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여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부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인구 구성은 1990년 15~19세 연령층의 인구가 총인구의 9.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14세 연령층(9.3%), 25~29세 연령층(9.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30~34세 연령층의 인구가 8.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44세 연령층(8.4%), 35~39세 연령층(8.3%), 25~29세 연령층(7.9%), 20~24세 연령층(7.8%)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연령층의 인구 구성비가 낮아지고 장년층의 인구 구성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는 25.2%,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67.3%,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7.5%이었으나 2001년에는 유·소년층 인구가 20.2%로 줄어들었고,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69.2%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10.6%로 크게 증가하여 노년 인구가 14% 이상인 노령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성과 연령층에 의한 인구 피라미드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주군의 노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젊은층이 도시로 선택적 인구이동을 하였고 또 출생률이 저하하였기 때문이다. 노년인구를 65~74세의 전기 노령층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층으로 나누어보면, 전기 노령층은 7.1%, 후기 노령층은 3.5%로 전기 노령층이 많다.

1910년과 2000년 거주자의 직업별 인구 구성을 보면 1910년에는 농업의 구성비가 약 8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이 약 8%를, 잡역이 약 2%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0년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1/3을 차지하여 여전히 농업의 구성비가 높고, 그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2%), 서비스 종사자(10.0%)의 순이다. 이와 같이 1차 산업 종사자가 높은 것은 여주군 지역에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대도시의 근교지역으로 상업적 원예농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여주군의 통계적 인구 밀도는 1986년 152.8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172.8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읍·면별 인구 밀도를 보면 먼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통계적 인구 밀도는 여주읍이 670.2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남면(213.4명/㎢), 북내면(181.5명/㎢) 순으로, 이들 읍·면은 군 통계적 평균 인구밀도보다 높다. 한편 경지 면적에 의한 경제적 인구 밀도는 여주읍이 2,288.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내면(738.1명/㎢), 가남면(569.6명/㎢) 순으로 여주읍과 북내면만이 군의 경제적 평균 인구밀도보다 높다.

3-2. 교통과 통신

18세기 경안도(慶安道)에 입지한 여주목의 역은 양화(楊花), 신진(新津), 안평(安坪)이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양화역은 여주읍에서 서쪽 15리에 위치하였다. 이는 한강 하류 쪽으로 지금의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양화나루이고, 신진역과 안평역은 여주읍에서 충주목으로 가는 도로상에 위치하였는데, 이 가운데 신진역은 여주읍에서 동쪽으로 5리에 위치하였으며 지금의 여주읍 신진리에 해당되고, 안평역은 여주읍에서 남쪽으로 30리에 위치하였으며 지금의 점동면 청안리에 해당된다. 이들 역들은 경안역에 소속되었으며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는 신진역이, 토지 소유로 보아서는 양화역이 가장 계층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천에서 여주까지의 도로는 42번 국도로 연결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도로는 경기도 남부에서 남한강 상류의 강원도를 잇는 주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천~여주~원주~강릉을 잇는 이천~강릉간 2등 도로는 일찍이 1912년에 기공하여 1918년에 완공하였다. 1931년에는 협궤로 수려선(수원~여주)이 이 도로 남쪽에 나란히 건설되었고, 1937년에는 수인선과 연결되면서 이 일대의 미곡 반출을 가속화시켰다. 이천읍 관고리와 여주읍 흥문리에 각각 치소(治所)가 있었으며, 대교천은 양화천의 별명인 듯하다.

대동여지도상에서 여주목에 분포한 고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주에서 지평 사이에 여주에서 약 35리(10리는 5.1km) 지점에 지경치(地境峙)가, 지평과 원주 사이의 여주목 경계에 전양현(前楊峴), 서화치(西化峙)가, 여주와 음죽 사이에는 여주에서 약 22리에 박석현(朴石峴)이, 양근과 이천 사이의 여주목 관할 지역에 양근에서 약 20리 지점의 노마현(老馬峴)이 분포하였다.

한강은 근대 교통 기관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중부지방의 대동맥 구실을 해왔다. 한강은 중부 내륙 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조선시대의 자원과 인재의 보고였던 영남지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려·조선조 1,000년 동안 한강은 전국 제일의 조운로로서 왕국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기여한 바 크다. 한강로에 입지한 여주는 강폭이 200간으로 넓으며 수심도 깊고 잔잔하여 이호(梨湖)라 칭하였는데, 여말과 선초까지 거의 1세기 동안 왜구의 피해 때문에 해로가 막히자 육로를 거쳐 한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조세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에 전세(田稅)의 분산 처리를 위하여 여주목에는 3개의 수조처(收漕處)가 있어 경창직납지(京倉直納地)이기도 하였다. 읍 동쪽 10리의 강변에 설치된 오음포창은 옥천 등의 충북 내륙 6개 군으로부터 전세를 받았고, 읍내의 퇴평포창에는 여주 음죽과 청안의 것이, 이포는 이천, 죽산과 진천의 것이 수납되었다. 그러나 조선 세조 때에 해운이 정상화되자 육로 수송의 불편함 때문에 여주 수조처는 폐쇄되었다. 조운제가 확립되고 나서 조운참이 설립되었는데, 여주목에는 이포참, 양화참이 설치되어 각 참에 수부(水夫) 30호와 참선(站船) 15척이 배치되었다. 참선에는 사공 1명과 격군 2명이 승선하였고, 수부들은 화물의 선적과 수로 정비의 책임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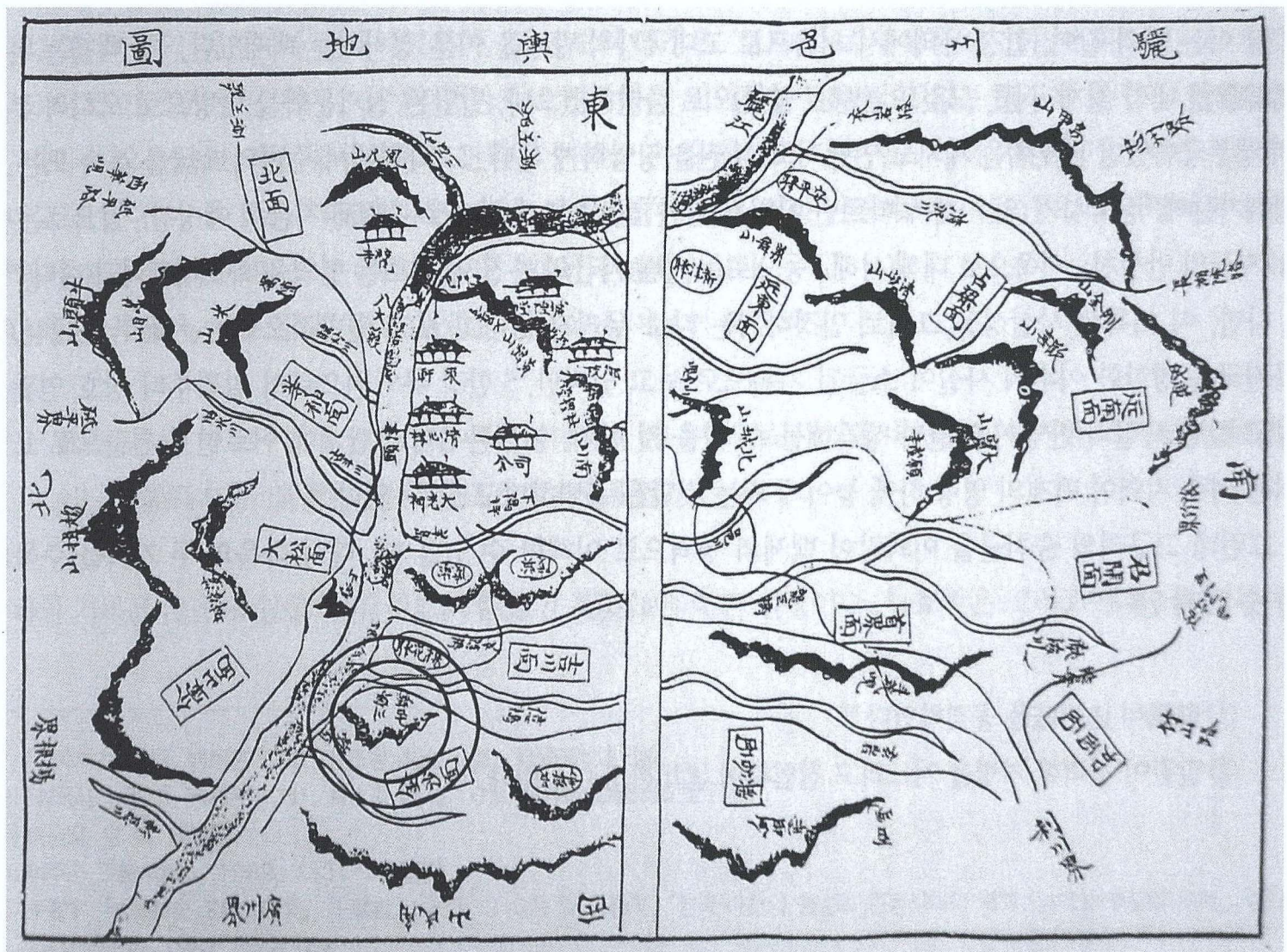


그림 2-3 여주읍여지도(서울대규장각 소장)

수참 수부들은 조정에서 수시로 징발한 수로에 익숙한 양인(良人)들이었다. 초기에는 조정에서 이들을 양역인 군역(軍役, 軍船)으로 조운에 종사토록 하였는데, 점차 역민(驛民) 등과 함께 칠선천역(七船賤役)의 하나인 수참간(水站干)이라 불렸다. 조선 후기에는 이들을 다시 군역인 수참수부보(水站水夫保)로 확보하였으며 그 수도 전기보다 증가하여 여주(이포)에 45인이 배치되었다. 20세기 초까지 이들은 지정된 장소에 거주해 왔으며, 이포의 수부촌은 천민 취락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여주읍에는 읍 자체의 전세를 수납하는 양화창이 하천변의 교통 요지에 입지하였다. 그리고 이포는 사상(私商)과 선운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남한강의 수운은 일제강점기 이후 수려선과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하여 팔당댐이 완공되었던 1974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여주목의 한강변에 입지한 다리는 관찬지(官撰誌)인 『여지도서』에 청민천교(淸泚川橋), 대교(大橋), 신은천교(莘隱川橋), 신은천교(新恩川橋), 억억교(億億橋) 5개가 입지하였다. 그후 『대동지지』에는 천민천(天民川), 대교, 억억교 3개가 입지하였다. 청민천교는 『여지도서』에서는 여주읍에서 남쪽 30리에 입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대동지지』에는 남쪽 35리에 위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교는 『여지도서』에서는 여주읍에서 서쪽 20리에 입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대동지지』에는 서쪽 25리에 위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억억교(億億橋)는 『여지도서』에서는 서쪽 30리에, 『대동지지』에서는 북서쪽 30리에 입지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찬지의 기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울로는 『대동지지』에는 마탄(馬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암지전(馬岩之前)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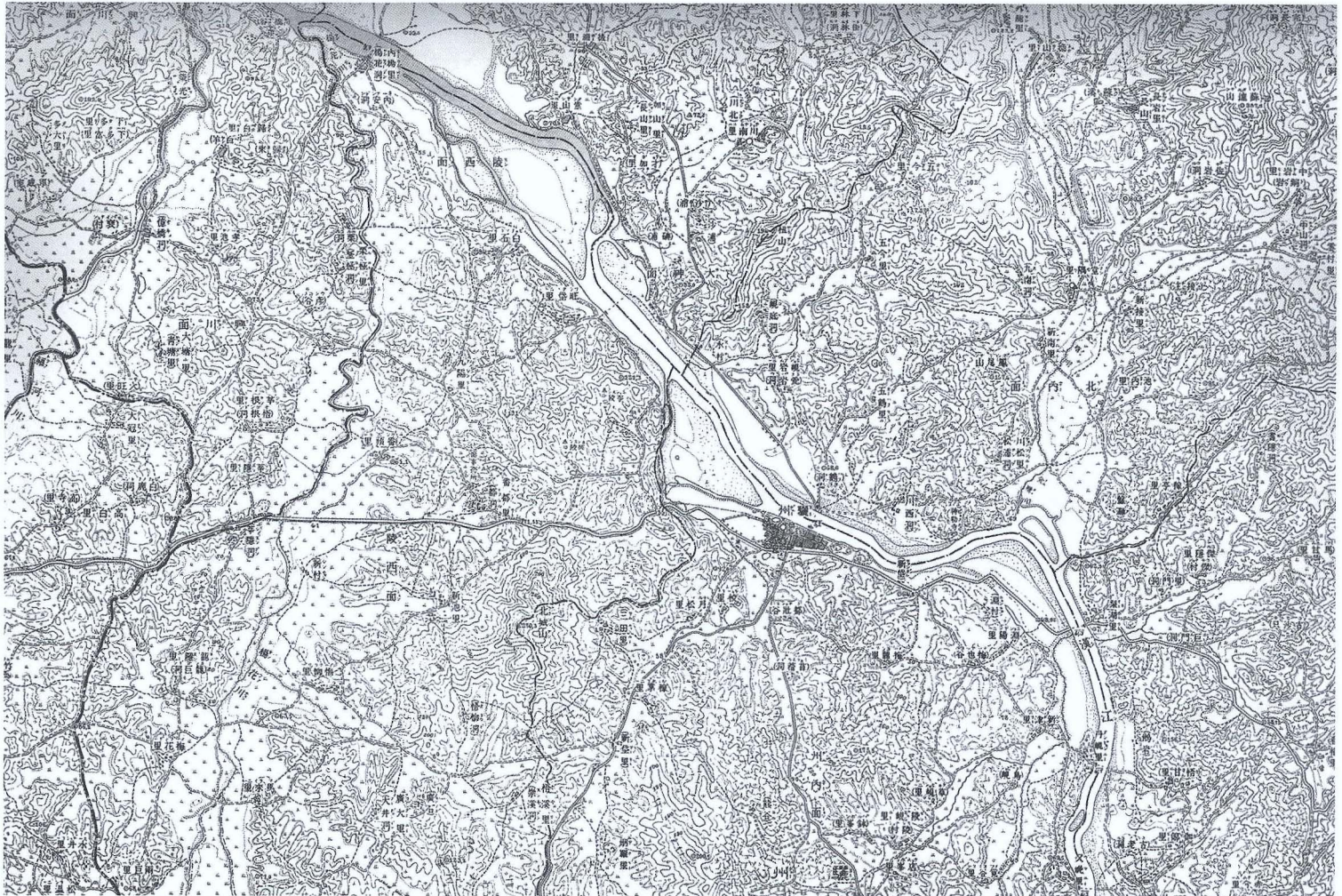


그림 2-3 일제 강점기의 여주지도

오늘날의 교통과 도로망을 보면 여주군의 도로 길이는 428.62km로, 이 중에서 지방도가 43.1%를 차지하여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군도(37.1%) 순이다. 그리고 모든 도로의 포장률은 80.0%이나 고속 국도와 일반 국도의 포장률은 100%이고, 지방도와 군도는 각각 86.6%, 61.8%로 낮은 편이다.

여주군을 통과하는 고속 국도는 50호선 영동고속국도(4차선)로 여주 나들목이 분포하고 있다. 도로망을 보면 일반 국도는 남북방향으로 거창~파주 구간의 37호선(여주군에서의 길이 37.5km), 동서방향은 인천~동해 구간의 42호선(23.9km)이 여주읍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3호선은 가남면 태평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읍 중심을 통과하는 국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

2001년 여주군에 가설된 교량 수는 모두 124개로 총 길이는 8,626m인데, 읍·면별로 보아 강천면이 1,821m가 가설되어 교량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여주읍이 1,479m, 금사면 1,207m이었다. 교량 중에는 1999년 강천면 이호리에 건설된 이호대교는 910m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1991년에 건설된 금사면 이포리의 이포대교(796m), 1997년 여주읍 상리에 건설된 여주대교(502m)가 500m 이상의 교량으로 한강을 끼고 있어 긴 교량이 많다.

한편 터널은 1999년에 준공된 일반국도 42호선의 강천면 부평리 부평터널(상행길이 478m, 하행길이 446m, 폭원 10m, 높이 8m)과 강천면 간매리 여주터널(상·하행 길이 75m, 폭원 10m, 높이 8m)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여주의 철도는 수려선으로 시작이 되었다. 수려선은 1920년 3월 3일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수원에서 여주까지 73.4km 구간의 건설면허를 얻어 1930년 12월 1일 수원~이천 사이의 53.1km를, 그 1년 후인 1931년 12월 1일에는 이천~여주 사이의 20.3km를 개통시켰다. 1937년 8월 6일에는 인천항(현재의 남인천)까지 52.0km를 영업하였고, 1935년 7월 5일 여주에서 물산 집산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동면 홍호리 대안까지 16.0km의 노선연장의 면허를 받았지만 태평양전쟁의 격화로 무산되었다. 여주까지의 철도부설은 여주가 한강의 주요 하항으로 1931년부터 이 지역의 미곡과 강원·충북지방의 농산물과 임산자원을 수원으로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1942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경동선(京東線)이라 부르다가 1946년 국유화되어 수원~여주 사이를 수려선이라 불렀다.

그 후 1960년대 이후 자동차 교통의 여객시장 잠식과 1942년에 중앙선, 1971년에 영동고속국도가 개통됨으로써 영서지방의 물자와 여객수송의 기능은 사라지고 경기도 일부 지역의 여객과 화물만을 수송하므로 1972년 3월 31일에 폐선이 되었다. 수려선은 용인, 이천, 여주,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방 남부를 세력권으로 내륙 수로 교통을 대체하는 지역 간선 교통 기관으로 기능하였으며, 동시에 수인선을 매개로 인천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므로 식민지형 경제수탈 노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수려선의 노선은 부발읍 무촌리에서 42호선 국도의 남쪽으로 죽아리~용운리~매류리~연라리를 거쳐 읍내로 들어갔고, 종점은 지금의 홍문리였다. 철거된 궤도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매류리의 역촌마을이나 매류철교는 수려선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3-3. 시장과 생활권

여주군의 정기시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조 27년(1827)경에 경제 문제를 다룬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예규지(倪圭志)」에 의하면 여주군에는 주내장(州內場), 억억장(億億場), 곡수장(曲水場), 신은천장(神恩川場), 궁리장(宮里場)의 5개 정기시가 입지하였다. 주내 정기시(2·7)는 관문 앞에 위치하였고, 억억 정기시(1·6)는 여주 서쪽 24리의 길천면에 위치하였으며, 곡수(曲水) 정기시(4·9)는 여주 북쪽 30리의 대송면에 위치하였다. 신은천 정기시(5·10)는 여주 북쪽 50리의 개군산면에 위치하였고, 궁리 정기시(3·8)는 여주 서쪽 30리의 금사면에 각각 위치하였다.

그 뒤 조선 고종 때 발간된 『증보문헌비고』 「시적고(市糶考)」에 의하면 여주군에는 읍내 정기시, 청안리 정기시, 억억교 정기시, 대휴(大畦) 정기시, 곡수 정기시의 5개가 개시되었다.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경제(朝鮮의市場經濟)』에 의하면 읍내시, 대평리시, 이포시로 3개의 정기시가 입지하여 그 동안 이 지역에 인구와 경제 수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8년에는 대평리시가 태평리시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55년에는 정기시가 6개로 1938년에 비해 홍천면에 입지한 홍천 정기시, 북내면의 주암(注岩)·당우(堂隅) 정기시가 증설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기시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여 거의 모든 면사무소 소재지 수준 정도의 중심지에 일제히 개설되어 1965년에는 8개가, 1976년에는 5개의 정기시가 개시되었으나 최근 자동차 교통이 발달되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많이 진출되면서 소규모의 중심지가 크게 쇠퇴되어 폐시가 많아져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여주·가남·대신 정기시 3개가 개시되고 있을 뿐이다.

생활권에는 상권을 위시하여 통근권, 통원권 등이 있다. 18세기 중엽 여주의 시장권은 한강 본류 유역권에 속하여 섬강이 한강에 합수하는 지점부터 우천까지는 여주장이 중심성이 가장 높고 규모가 컸었다. 그러나 지평이나 이천쪽으로도 소규모의 시장권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평과 이천은 수로변에 위치한 정기시가 아니므로 포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어 이포(梨浦)가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포에 정기시가 개시된 것은 1909년 자료에 처음 나타나지만 조선 후기에도 갯벌장의 형태로 상업적 기능이 크게 발휘된 곳일 듯하다. 여주 시장권은 여주장과 이포를 유통 거점으로 형성되었으며, 한강 수로의 동쪽으로는 곡수·지평·노음평장을, 서쪽으로는 이천·군량·곤지암장 등을 아우르는 시장권 이었다.